

화보로 보는 '2008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디지털영상전' 이모저모

최신 기술 · 제품 정보를 '한 눈에', 첨단 IT · 영상 기술의 대 향연

사진영상분야에서 아시아 최고의 전시회로 손꼽히는 '2008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디지털영상전' 이 지난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코엑스 본관 1층 태평양홀에서 성대하게 펼쳐졌다. 금년으로 17회를 맞이한 이 전시회에는 20 개국에서 250여 개사가 참가하여 급속한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최첨단 디지털 사진 영상장비와 관련 기자재를 선보였다. 올해에도 삼성테크윈 등 주요 카메라 메이저 업체들이 참여하여 더욱 다양해진 디지털 카메라를 대거 선보이고 체험 이벤트를 마련하여 전시장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전시기간동안 지난해 6만2천여명보다 늘어난 7만 여명의 관람객들이 다녀가 갈수록 인기를 더해가는 사진영상 분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기사는 54쪽에 계속>

|취재/박지연 기자



▶ 첫날 전시회 시작 전부터 관람객들이 몰려 동 전시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



▶ 전시장 입장을 위해 관람객들이 줄서서 현장 등록을 하고 있다.



▶ 개막식 테이프커팅행사에 앞서 소개받은 한국 광학기협회 박종우 회장이 내외빈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 4월 10일 전시회 개막식과 함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식을 가졌다.



▶ 코엑스 전시1팀 박영호 팀장으로부터 전시회 개요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내외빈의 모습.



▶ 삼성테크윈의 부스에서 지식경제부 설정선 실장에게 삼성 카메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한국광학기기협회의 박종우 회장.



▶ 캐논코리아 컨슈머미징 부스에서 DSLR 카메라를 체험하는 협회 박종우 회장과 지식경제부 설정선 실장.



▶ 올림푸스한국 부스에서 방수카메라를 직접 체험하는 내외빈들의 모습.



▶ 참관객들이 렌즈 신제품들을 관심있게 살펴보고 있다.



▶ 삼성테크윈에서는 한국인 최초 우주인 탄생과 삼성 카메라가 우주로 간 것을 기념해 우주인 복장 모형에서 사진 찍어주는 이벤트를 실시했다.



▶ 니콘이미징코리아 부스에서는 니콘의 마이크로 렌즈를 장착한 고성능 디카를 이용해 '니콘불 찾기'라는 재미난 이벤트가 벌어졌다.



▶ 카메라 및 프린팅관련업체 부스에서는 연일 모델들을 앞세워 참관객들이 마음껏 촬영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촬영대회를 연상케 하는 상황이 연출됐다.